



BURBERRY

버버리의 신상품 페탈을 소개합니다
T. 080 700 8800
BURBERRY.COM

Style

조선일보

APRIL 2014 vol.107



Panthère Ajourée de Cartier watch

Cartier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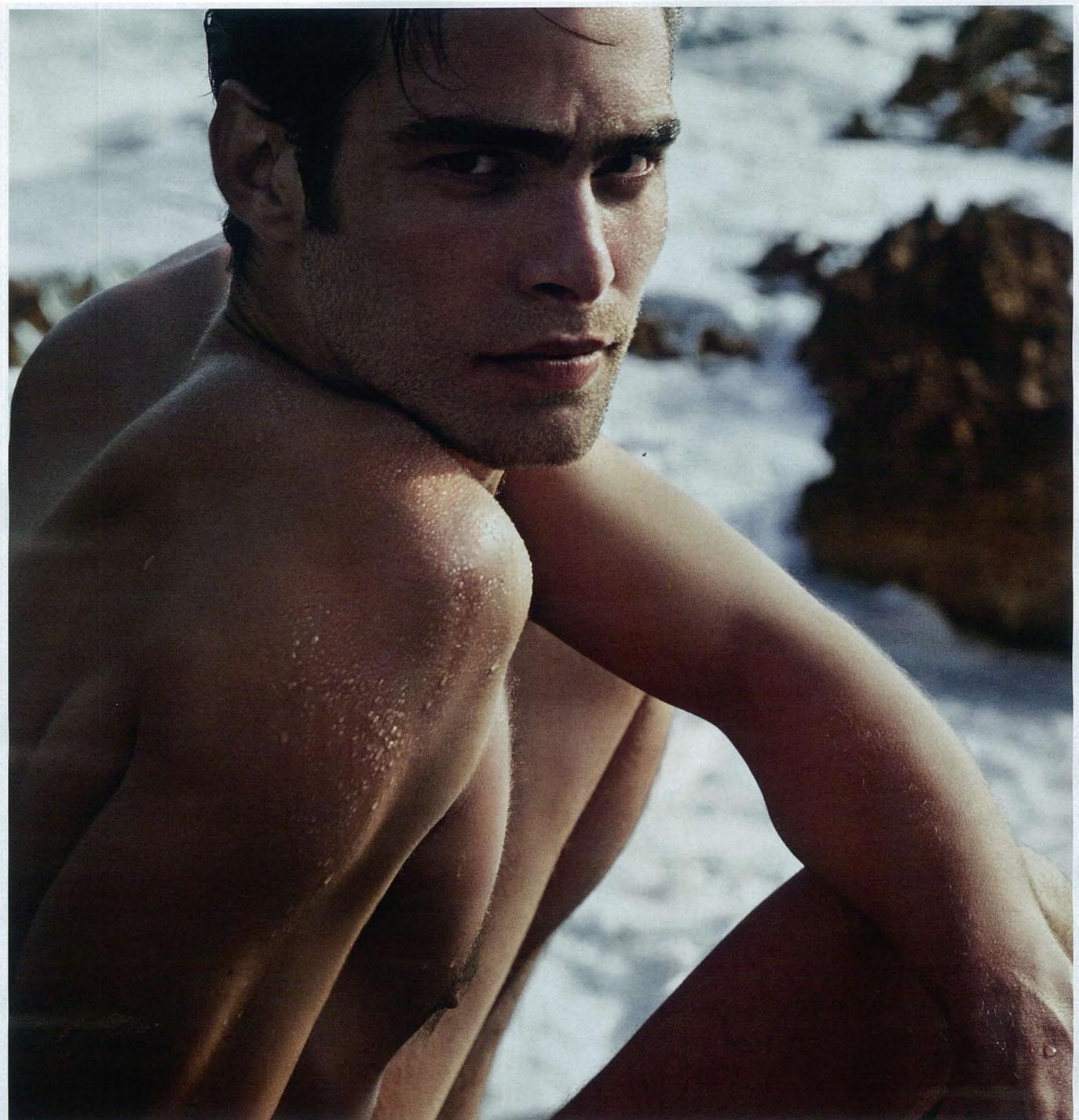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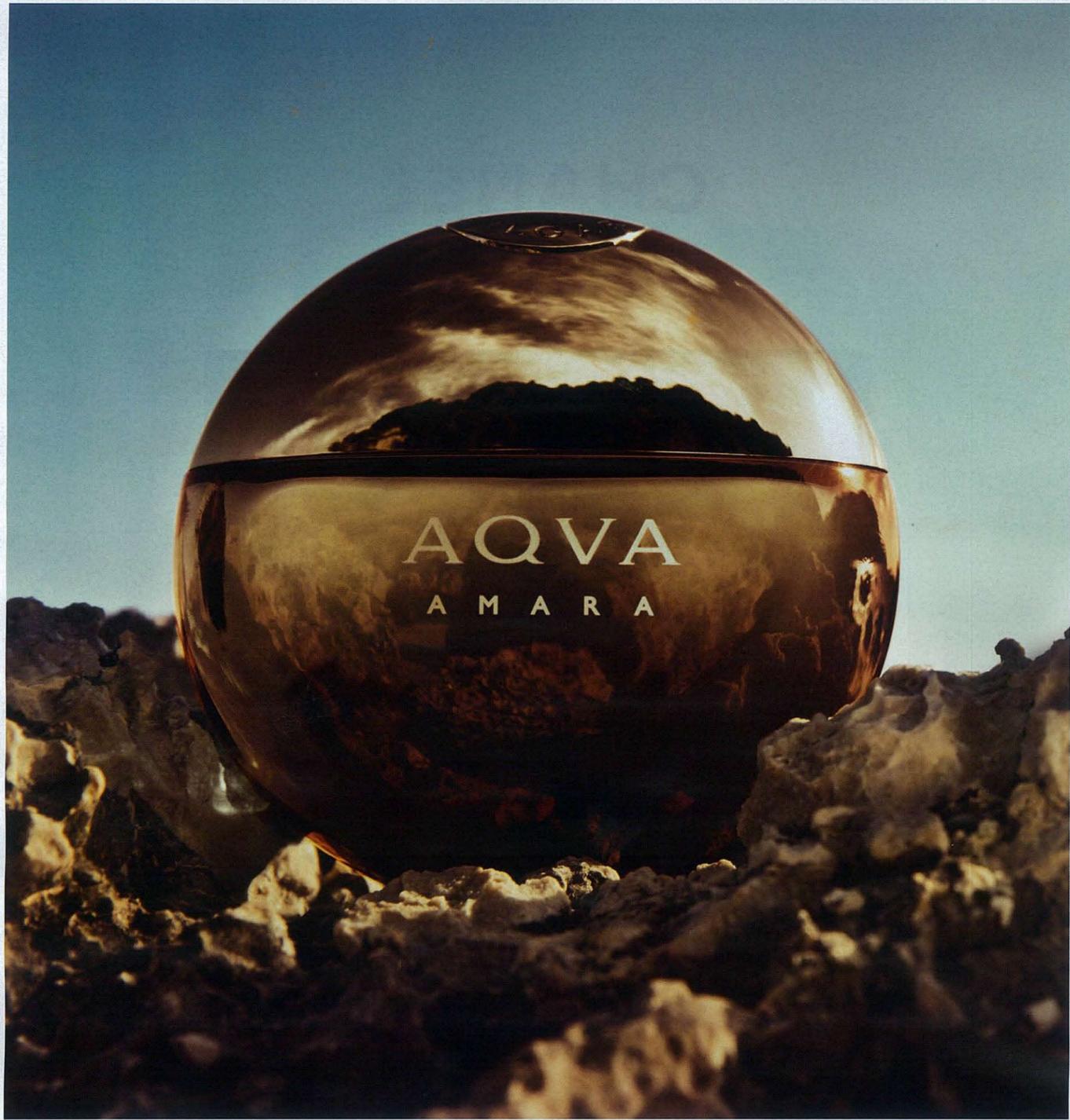
FINE JEWELRY



"CAMÉLIA GALBÉ"

BRACELET AND RINGS WHITE GOLD, CERAMIC AND DIAMONDS

갤러리아 명품관 East (02) 3442-0962



Kumbi cosmetics 080-860-8689

BVLGARI

AQVA
A M A R A



AVO A
TIME
postmodern



MOO
TIME
postmodern



16



표지에 등장한 팬더 드 까르띠에 오픈워크 워치는 리코 양분배드 까르띠에 컬렉션 중 하나로 시간과 미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이다. 알칼리 생광력이 넘치는 최고의 재료로 아름다운 시를 완성하는 까르띠에의 놀라운 노하우를 입증하는 디자인으로 수수께끼 같은 동물, 팬더가 베누아 디젤 중장예 그 우아한 모습을 드러낸다. 문의 1566-7277



36



14

- 16 **배려 그리고 '소통', 비즈니스 다이닝으로 통하다** 21세기에 비즈니스 다이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디자인 기교로 소통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에도 우리에게 비즈니스 다이닝이 꼭 필요한 이유와 새롭고 주목받고 있는 주요 트렌드를 소개한다.
- 18 **SPORTY ELEGANCE** 화려한 볼라 여자 손목을 감싸줄 워치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좋다. 화려한 브레이슬릿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산뜻한 컬러, 경쾌한 디자인의 여성용 스포츠 워치 컬렉션.
- 20 **SWEET PROMISE** 합리적인 가격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링을 구매할 수 있을까? 브랜드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며 소장 가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만 만족감이 뛰어난 3백만원대 이하의 다이아몬드 링 컬렉션.
- 22 **IT LIP COLOR** 여자의 봄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드러운 베이비 핑크, 상큼한 코랄, 경쾌한 핫핑크 등 사랑스러운 스프링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내는 입술 만들기.
- 24 **SPRING SCENTS** 봄의 나른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내날들, 이 평화로운 순간과 함께할 산뜻한 향의 향수들.
- 26 **WONDER CLUTCH** 잇백, 잇수조의 시대가 지난 후, 조금은 과감해진 패션 트렌드에 걸맞게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한 클러치백.
- 28 **LIGHT ACT** 문을 박차고 활짝풀려 뛰어 나가고 싶은 계절. 투박하고 무겁고 산뜻한 컬러, 다채로운 패턴을 입은 슬림한 수츠가 우리 곁에 왔다. 진한 인디고 데님은 물론 미디스커트, 활영한 크롬트 팬츠와도 멋지게 어울리는 슬림한 수츠와 함께 봄바람을 만끽해볼 것.
- 30 **SHOES ON TOP** 셀러브리티가 먼저 알아본 이탈리아 수츠 브랜드 아쉬(ASH). 최신 트렌드를 감각적인 빈티지 스타일로 표현한 2014년 아쉬의 뉴 컬렉션은 모든 룩을 업그레이드해줄 아이템이다.
- 32 **BLOCK THE SUN**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기본이다. 비르지 않은 듯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 이기가 발라도 될 만큼 순한 성분과 잡티를 완화하는 스킨케어 효과, 물과 땀에 쉽게 유지되지 않는 지속력까지, 자외선 차단제의 진화는 계속된다.
- 34 **EDITOR'S PICK** 따스한 봄별을 따라 배낭 메고 산과 들로 떠나고 싶은 4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제품을 공개한다.
- 36 **SPRING FEVER** 멋을 아는 트렌디한 남자들이 모였다. 경쾌한 패턴, 모던한 디자인과 산뜻한 컬러까지, 윙클 남자들의 패션은 더욱 신선하다.
- 44 **LOVE LIPS** 새로운 시즌을 맞아 립 제품이 각축전을 벌이는 봄, 에스티 로더의 최신작 '퓨어 컬러 언버 사인 립스틱'은 한국 여성들을 위한 맞춤 립스틱이라는 점에서 단연 주목할 만하다.
- 45 **COMPLETE PROTECTION** 자외선 차단 자수만림이나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의 미세한 골짜기까지 매끈하게 비르는 것. 1백여 년의 역사, 수백만 개의 자외선 차단제 판매 기록을 보유한 자외선 차단제 전문 브랜드 '시세이도'는 세계 최초로 360° 모든 각도에서 피부를 빈틈없이 보호하는 완벽하고 혁신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인다.

Style 조선일보

Issue.107 April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BE UNIQUE!**

상상하지 못한 과감한
모티프가 아름다운 주얼리로 변신한다.
유니크한 모던 주얼리의 세계.

가운데 뿔뿔이 시계 방향으로 배열 형성해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엘스 파파티 본 카프, 오른쪽 손목쪽과 왼쪽 손목쪽이 구분되어 있다. 1백만원대 **타사기**, 금을 직조한 듯 유연한 디자인의 데릴라 핑크 골드 브로이슬릿 2천원원대 **부세온**, 화이트 골드 볼 디테일에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대니얼 핑 네르스 4백30원원대 **타사기**, 타이타늄으로 보이는 링에 진주를 매치한 라피엔트 리얼타임 링 2백90원원대 **타사기**, 링크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나일론 혼용하게 매칭한 인베이트 크레브 링 6백원원대 **루시엔**, 꽃을 완전한 주얼리로 재해석한 대룡과 개성 넘치는 저스트 앵글루 링 2백90원원대, 옐로 골드 브로이슬릿 8백20원원대 모두 **카르띠에**, 에디터 **에이진**

**Fashion
PASTEL POWER**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만큼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컬러가 또 있을까. 이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공감이라도 한 듯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 등 4대 컬렉션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담은 파스텔 룩이 봄바람과 함께 넘실거렸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쇼 무대를 파스텔 무드로 가득 채운 바버리 프로삼이다. 쇼 파빌레에 흠날리는 꽃잎과 함께 로맨틱함의 절정을 보여준 바버리 프로삼의 파스텔 룩은 한들거리는 레이스, 시폰,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와 아우라져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토즈는 클린한 코트 소재와 파스텔컬러의 조화로 우아하고 담백한 파스텔 룩을 완성했다. 이처럼 라벤다, 레몬, 핑크, 파스타치오 등 달콤한 마카롱 컬러부터 네온 파스텔, 미드 톤의 파스텔컬러까지 다채로운 패일 컬러가 등장했는데, 이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같은 컬러 계열 간의 매치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 또 뉴트럴이나 화이트 컬러와 매치해 스포티한 느낌을 기미한 파스텔 룩도 선보였다. 파스텔 톤을 실생활에서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구조적인 실루엣의 디자인을 선택할 것. 오버사이즈 코트, 스웨터 셔츠, 플 스커트와 같이 구조적인 디자인의 파스텔 아이템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에디터 **권진진**



클린 클라임

질 샌더

바버리 프로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봄날의 나른함을 달래주는
우아하고 싱긋한 애프터눈 티**

봄날의 나른한 오후를 무료하지 않게 해주는 '애프터눈 티 (afternoon tea) 세트'가 요즘 호텔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각종 프리미엄 티를 접할 수 있는 티 살롱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티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5성급 호텔들이 앞다퉈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친 애프터눈 티 세트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우아한 미식 문화는 홍차에 딸기 잼을 곁들인 따끈따끈한 스콘과 각종 맛깔스런 샌드위치, 디저트로 구성된 스낵이 담긴 3단 트레이를 기본으로 한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서울 삼성동 37 그릴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코비 라운지 & 바에서는 정통 영국식 '하이 티(high tea)' 세트를 오후 2~6시까지 판매하고 있다. 독일의 본 차이나 브랜드 디벤(Dibben)의 트레이에 담긴 15가지 디저트 메뉴를 미국의 티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팀메이커 (Steven Smith Teamaker) 제품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서울 37층에 자리한 레스토랑 37 그릴 앤 바 (37 Grill & Bar)에서는 한강을 바라보며 만끽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새로 선보였다. 현대적 타치를 기미한 프티(petite) 디저트 컬렉션과 3백20년 전통의 명품 프랑스 티 브랜드 다만 프레르(Dammann Freres) 티나 커피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샴페인도 곁들일 수 있다. 또 서울 신라 호텔에서는 본고장인 영국의 왕실 수석 셰프로 활동한 캐롤린 로브에게 전수한 티 세트를 1층 라이브러리에서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티 브랜드 TWIG의 티와 캐롤린 로브프 '오렌지 마일레이드 케이크'의 조화가 일품이다.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애프터눈 티 세트를 음식 한 번에 내오는 게 아니라 수차례 시행하는 정성과 푸아 그라 등 고급 식재료를 기미한 특제 디저트가 눈에 띈다. 에디터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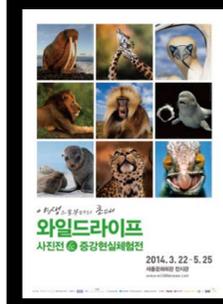
콘래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신라

**Beauty
VERSATILE PENCIL**

아이리언을 그릴 때엔 펜슬을 쓴다는 건 이제 옛말. 아이세도는 물론 립 라이너, 립스틱, 하이라이터, 컨실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다채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펜슬 화장품의 활약에 주목할 때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슈에무라 아이 리프트 펜슬** 양쪽 끝에 서로 다른 질감의 화이트 펜슬이 달려 있는 하이라이터 펜슬. 눈썹 뼈와 눈 밑, T존 등을 밝히고 싶을 때는 매트한 질감을, 아이리언이나 눈 밑머리, 입술 라인 등에 반짝임을 주고 싶을 때는 펄 질감을 사용하면 된다(2.6g 2만6천원). **나스 새틴 립 펜슬 이블라 벨라**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촘촘히 매워 빈틈없는 발색을 지향하는 크레용 타입 립스틱.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 클라렌틴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입술이 메마르지 않는다(2.2g 3만5천원). **결랑 더 아이 펜슬** 매끈한 왁스, 화사한 풀러머, 질은 컬러를 절묘하게 조합한 아이리언이나, 한 번의 터치만으로 부드럽게 그려지고 지속력이 뛰어난다(0.5g 3만3천원). **크리니크 체비 스틱 모이스처라이징 립 컬러 밤** 밤색이 뛰어난 립 틴트와 수분감이 풍부한 립밤의 장점을 하나로 합쳤다. 입술에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발리는 사용감이 특징이다(3.0g 2만7천원). **바비 브라운 이트 스틱** 사야비타와 식물성 오일을 완벽하게 배합한 크리미한 질감으로 양 볼과 입술에 바를 수 있는 멀티 스틱과 이트 스틱 전용 펜슬 사프너(5.6g 3만8천원). **맥 페이퍼트 풀러쉬 립 펜슬** 울퉁한 형태와 자유자재로 블렌딩할 수 있으며, 꺾을 필요 없이 돌려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특징이다(2.3g 3만1천원). 에디터 **이예진**



**Exhibition
야생의 생생함이 흠뻑진뚰한 (와일드라이프, 사진전 & 증강현실체험전)**

세계 최고의 사진가들이 기록한 야생동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전시관(1층)에서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오자와 말뚝을 누비며 담아낸 야생동물 사진을 한데 모은 (와일드라이프, 사진전 & 증강현실체험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시는 국내 최초로 사람의 동작에 반응하는 '증강현실' 방식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면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자연사박물관(National History Museum)과 BBC 월드와이드(BBC Worldwide)에서 매년 주최하는 '올해의 야생 사진가'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진가들의 대표 작품 1백7점이 공개된다. 특히 관람객들이 몸소 야생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존이 흠뻑이다. 5m의 대형 화면과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센서가 설치된 이 체험 공간에서는 기상의 그래픽을 적용한 7종(미아켓, 캥거루, 펭귄, 북극곰, 고릴라, 돌고래, 호랑이)의 야생동물이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맞춰 반응한다. 관람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만2천원이며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 공식 홈페이지 www.wildlifekorea.com 에디터 **고성연**

PRADA

Dane DeHaan
New York, November 2013

+822 3443 2323 prada.com



TOD'S KOREA INC. 02 3448 8201



for him Selection

당장이라도 필드에 뛰어나갈 법한 아웃도어 룩은 잊어라. 트렌디한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럭셔리 스포티즘이 새로운 스타일로 부상했다.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네온 컬러 백팩, 31X36.5cm, 2백50만원 필립 플레인.



자전거 일러스트 클라치, 27.5X40cm, 29만원 폴스미스.



광택이 빛나는 장갑 장미 3백90만원 폴포드.



오렌지 컬러 라버 스트랩의 네이비 SUB 오토 크로노 워치 2백63만원 해밀턴.



1백20만원 30% 할인 혜택



데님 하이탑 슈즈 1백63만원 발랑.



그레파 배틀의 비인즈 장갑 가죽 미팅 1백99만원 by 분다.



컬러 블록 장미의 인스프루트 스니커즈 1백53만원 구찌.



벨트 장식의 가죽 팔찌 가죽 미팅 1백99만원.



감각적인 마러 선글라스 30만원대 레이번 by 루스티카 코리아.



백 스타일로 장미의 코리안 컬러 클라치 1백27만원 분다.



감각적인 패턴의 스웨트 셔츠 1백48만원 날 바넷.



요트 모터보트의 키링 20만원대 프라다.



캐주얼 코디의 코디네이션 1백99만원 폴포드.



그린 체크 패턴 모자 10만원대 존 로렌스 셸리반 by 무이.

ASHLEY 우량형 아이티 무우진 ASHLEY 우량형 아이티 무우진





양귀족 소재의 투톤 컬러 클러치 (64만원) 셀린느.

볼드한 크리스탈 드롭 이어링 70만원대 프라다.

불링 백을 연상케 하는 퀴팅 패턴의 나파 바이커 백, 37X24cm, 2백60만원대 미우미우.

투명한 스카피 유닛과 반글림 렌즈 7205천원, 블랙 이면엔 도우 구찌.

파스텔 컬러 하이탑 슈즈 1백6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스누피 비즈 장식이 시린스라운 화이트 원피스 가격 미정 패이 by 분더샵.

for her Selection

평상복과 스포티한 룩을 적절히 믹스한 스타일링은 진정한 패션 고수의 면모를 드러낸다. 경쾌하고 세련된 데일리 스포티 웨어로 일상에 활력을 더할 것.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양귀족으로 만든 럭셔리한 축구공 가격 미정 풀몰보.



컬러 도트 패턴의 슬림은 83만원 자랑시.



편카한 무드의 체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필립 폴레인.

스타일링에 유쾌성 아사시엔트 이세영 이다나 권유진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도트백, 44X41cm, 가격 미정 셀린느.



회려한 패턴의 스타디움 챔퍼 8백45만원 발망.



화실의 그림을 옮겨놓은 듯 감각적인 캔버스 백팩, 27.5X32cm, 4백50만원대 샤넬.

모던가죽 컬러 가격 미정 에르메스.

- 분더샵 02-310-1364
- 셀린느 02-540-0486
- 미우미우 02-3218-5341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구찌 1577-1921
- 프라다 02-3218-5331
- 올티갈 W 02-6911-0845
- 필립 폴레인 02-544-9132
- 자랑시 02-517-7560
- 풀몰보 070-7130-9200
- 샤넬 02-543-8700
- 에르메스 02-544-7722
- 발망 02-6905-3585



CÉLINE

캘리아 이서 신세계 북문점 신세계 영문점 신세계 연남시점 현대 북문점 현대 무역센터점

‘배려’ 그리고 ‘소통’, 비즈니스 다이닝으로 통하다

21세기에도 비즈니스 다이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디지털 기기로 소통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에도 우리에게 비즈니스 다이닝이 꼭 필요한 이유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요 트렌드를 소개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찬

비즈니스 다이닝은 아티스트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지? 프랑스의 미술가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를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곳은 아틀리에이자 비즈니스 다이닝의 주무대이기도 했다.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에서 직접 생산한 식재료로 만찬을 준비해 부유한 화상들에게 대접하며 그림을 비싼 가격에 팔곤 했다. 당시 모네의 초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그는 작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한다. 파블로 피카소 역시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까지 하며 그날의 모임에서 자신의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고 한다. 만찬이 끝나기 전에 자연스럽게 작품이 모두 판매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들 아티스트의 경우는 다소 아박하게 비즈니스 다이닝을 활용해 아쉽지만, 그만큼 비즈니스 다이닝이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현대의 정치인들에게도 비즈니스 다이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얼마 전 영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 궁에서 베푼 만찬에서 직접 잡았다는 핑어로 만든 요리와 사토 레오빌 라 카스(Château Leoville Las Case) 1989년산을 대접받으며 앞으로 양국 관계의 우호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국빈 만찬이라는 것은 사실 여왕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뿐인데 왜 세계의 관심을 받는 것일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년에 한두 명의 정상만 국빈 초대한으로서 왕실의 권위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왕의 초대는 외교와 직결되는 사항이라 정부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며, 국빈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국이 해당 국가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만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해진다. 그 은밀한 이야기는 조만간 양국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비즈니스 다이닝은 힘이 세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비즈니스 다이닝의 파워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삼열 전 외교통상부 의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비즈니스도 인간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간의 협의를 도출하는 수단으로 ‘소통’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화상 전화로 회의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와 국가 간의 협상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식사를 함께 하면서 비즈니스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믿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삼열 전 위원장은 중요한 결정은 딱딱한 회의석상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했다. 서로에게 비판적인 경우라도 여러 번 만나 식사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먹고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비즈니스 다이닝에서는 그 사람의 인품을 완벽하게 숨길 수 없기에 함께 식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 감히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 주목받는 비즈니스 다이닝



의 큰 트렌드를 꼽자면,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격식을 중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편안한 만남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이들이 선호하는 ‘워킹 런치(working luncheon)’는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로 토론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외교관뿐 아니라 기업 간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 시간을 단축하면서 보다 친근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회의를 할 수 있기에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회의를 자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회의와 식사를 동시에 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워킹 디너(working dinner)’도 종종 이루어지는데, 저녁 시간에 만나다 보니 술을 한두 잔 곁들이기도 해 더욱 회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브라운 백 세미나(brown bag seminar)’는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각자 식사할 것을 사 가지고 만나서 회의하는 것을 뜻한다. 테이크아웃 매장에서는 대개 브라운 컬러 종이에 음식을 담아주기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대기실에서 비즈니스 다이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그룹은 한 가지 술을 1차로 8시까지, B그룹은 한 가지 술을 1차로 9시까지 마시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트렌드는 ‘118’, ‘119’라고 불리며, 사회 정화라는 긍정적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다. 폭탄주 문화로 11년 연속 세계에서 프리미엄 위스키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명예를 씻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레이디 퍼스트의 진화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예전에는 초대장에 ‘부인(wife)’을 동반하리라고 기재했다. 그 후에는 ‘배우자(spouse)’와 함께 명명하리라고 썼다. 하지만 요즘은 파트너(partner)를 동반하리라고 쓰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오피니언 리더 중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고,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미혼이나 성적 소수자를 존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영어를 사용할 때에는 여성 차별적인 어휘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는 남녀 평등적인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고급 어휘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면 예의 바르고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문서에 쓰이는 대명사도 남자를 기준



1-3 플라워 데카레이션과 플레이트, 카멜리아 등으로 만찬의 특성을 맞는 테이블 세팅을 준비하는 것은 호스트를 맞이하는 게스트의 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첫 단추이다. 주로 만찬은 와인 중심으로 화려하게 세팅하지만 점심 식사는 비즈니스 노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구성하고 한다. 4 미스에 관심이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인 경우, 서울을 방문한 스타 셰프가 준비하는 이벤트 만찬에 초대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사진은 서울 고메에 참석한 브라질 레스토랑 D.O.M의 셰프 알렉스 아벨라. 5 레스토랑 ‘탑 클라우드’에서 연주하는 모습. 음악을 좋아하는 피터-다윈 라이너 연주할 때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게 한다. 6 ‘별가 비의 한우 안심과 고르곤줄라 치즈를 곁들인 브루스케타. 7 별가는 재즈 연주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와인 컬렉션이 좋아서 비즈니스 다이닝을 진행하기 적합하다. 8 게스트는 비서 등을 통해 호스트의 미식 취향을 미리 인지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다이닝을 준비할 수 있다.



으로 했지만 요즘은 ‘he/she, his/her’를 병기한다. 그리고 ‘회장’은 chairman이 아니라 chairperson, ‘대변인’도 spokesman이 아니라 spokesperson, ‘인류’는 mankind가 아닌 humankind로 바꾸어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레이디 퍼스트의 예의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테이블에서 여성 왼쪽에 앉은 남성은 여성이 착석하거나 일어날 때 의자를 빼주거나 밀어주며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음식을 서브할 때도 여성 게스트에서부터 시작해 여성 호스트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남성 게스트와 호스트의 차례이다. 와인 역시 테이블링은 호스트가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여성 게스트의 잔부터 와인을 따라주는 것이 매너이다. 자동차를 탈 때도 여성이 우선적으로 승차하고, 내릴 때는 남성이 먼저 하차해 여성이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다이닝에서 돋보이는 언행이 될 수 있으니 당장 실천에 옮겨보자.

새로운 한식을 주목하라

세계적으로 웰스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점심 식사는 최대한 가볍게 주문하고, 술을 덜 마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 다이닝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몸에 좋은 한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통 한식 레스토랑보다는 한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레스토랑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얼마 전, 뉴욕에서 미술생 2스타를 획득한 퓨전 한식 레스토랑 ‘정식당’은 뉴욕과 서울에서 비즈니스 다이닝을 위한 인기 레스토랑으로 떠올랐다. 한식의 다양성과 조합의 묘미에서 영감을 얻은 이곳에서는 외국인 게스트도 한식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한식은 사실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러 요리를 큰 상에 가득 차려내는 전통 한식이라면 외국인들은 메인 요리가 무엇인지 몰라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할지 당황할 수 있다. 서양식 코스 요리 형식으로 한식을 서브할 때도, 밥과 국이 디저트 바로 앞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배가 부른 해외 게스트들은 메인 요리를 또 먹어야 한다는 것에 난감해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멋과 풍류를 담은 한식과 전통 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식사 전에 게스트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그들의 식사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현대의 한식당 중에는 세련된 서브 형식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을 따로 마련한 곳도 많아

외국 게스트와 함께 식사하는 비즈니스 다이닝에 적합하다. ‘정식당’ 이외에 ‘폼 서울’, ‘오늘’, ‘비체나’, ‘시화담’, ‘달개비’, ‘콩두’ 등의 모던 한식 레스토랑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 게스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한식의 재발견은 기본 좋은 트렌드로 여겨진다. 한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자원이 없다면 차라리 고깃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해외 게스트에게 숯불에 갈비를 구워 먹는 문화는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라.

와인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한식과 와인을 매칭하는 즐거움 역시 비즈니스 다이닝의 흥미로운 도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웨다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의 유명인 소믈리에가 한식과 와인의 매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론 와인은 한식과 좋은 궁합을 이룬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이 있는 론 지역의 시라 품종으로 만드는 레드 와인은 강한 풍미가 특징이라 한식과 잘 어울린다. 다음으로 로제 와인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한식은 서양 요리와 달리 맛의 스펙트럼이 넓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성격을 두루 갖춘 핑크 컬러의 로제 와인은 모든 요리에 어울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운 요리에는 스파이시한 와인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스파이시한 와인은 요리의 매운맛을 더욱 부추겨 이국적인 궁합을 이룬다. 이제 비즈니스 다이닝에서 와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 다이닝이라면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대세다. 이전에는 점심 식사에도 도수 높은 카테일을 곁들이곤 했지만, 이제는 와인 한두 잔으로 대체한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대두된 이후에는 맛이 진한 고가의 와인보다는 가격대가 적당한 밸런스 좋은 와인이 주목받고 있다. 레스토랑에 와인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접대하는 호스트가 종종 있는데, 사실상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코르크 차지를 지불한다 해도 우리나라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관례이기 때문이다. 코르크 차지는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가능한 일기는 하나, 와인메이커가 자신의 와인을 레스토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다. 피치 못하게 의미 있는 와인을 비즈니스 다이닝을 위해 레스토랑에 가져가게 되었다면, 화이트 와인이나 디저트 와인을 주문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래식 공연을 함께 보고 식사를 하는 것도 비즈니스 다이닝의 새로운 유행이다. 저서 <글로벌 파워 매너>를 출간하기도 한 서대원 전 UN 대표부 차석 대사는 대화에 공통된 소재가 있어야 사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조언했다. “식사는 서로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식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라나 발레 공연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야깃거리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공연을 함께 본다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신뢰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연을 보기 전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관람 후에 식사를 해도 무방하다. 뉴욕에서는 공연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 인터미션 시간에 식사를 하는 문화도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연을 볼 때 유의할 사항은 서로가 관심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트너가 오페라를 처음 본다면 지루해할 수 있으니,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반면 상대가 클래식 애호가라면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대화가 끊이지 않는 요령이다. 이처럼 현대에도 비즈니스 다이닝의 파워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다이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중요한 한 가지는 ‘배려’다. 게스트를 배려하고 호스트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품을 느낄 수 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면, 비즈니스에서 웬만한 어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R** 크로스웍(사진 미술에 중독하다), <서울, 그 카페(종다) 자자



sweet Promise

합리적인 가격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링을 구매할 수 있을까? 브랜드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며 소장 가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도 만족감이 뛰어난 3백만원대 이하의 다이아몬드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 높은음자리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모니 다이아몬드 밴드 링 3백만원대 **티파니**, 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던한 패턴의 미들리베 링 2백13만원 **사벨 화인 주얼리**, 스티드 느낌의 시루라 골드 세팅에 스톤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유니크하게 배치한 채터 플랜트 링 2백60만원대 **타사키**, 정미의 화관이라는 의미를 지닌 코롱 링, 골드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감싸 다이아몬드의 불꽃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2백80만원대 **루시예**, 0.20캐럿 다이아몬드를 핑크 골드에 매치해 컬러 대비의 매력을 살린 까르띠에 솔리테어 1895링, 워딩 링으로도 손색이 없다. 2백80만원대 **까르띠에**, 뱀 모티브로 우아하게 완성한 부채꼴의 시그니처 칼렉션 새행 보행 옐로 골드 스톤 링, 밴드의 섬세한 패턴이 표현할 수 있는 완성도를 지녔다. 3백만원대 **부채문**, 원 포인트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비어린 커브 워딩 밴드 2백50만원대 **까르띠에**, 티파니 로고 옆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TCO 밴드 링, 카툼 워딩 밴드로 인기가 높은 디자인이다. 2백만원대 **티파니**, 장미꽃이 아닌 장미 잎사귀를 모티브로 섬세하게 세팅한 페탈 링 2백10만원대 **루시예**, 화이트 골드에 로마숫자를 오픈워크 처리한 아틀라스 칼렉션의 피아스드 링, 로마자 사이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90만원대 **티파니**, 마치 물결이 흐르듯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가 어우러진 웨이브 링 1백80만원대 **타사키**, 핑크 골드를 인체적으로 세팅한 후 3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셋 핑크 골드 웨딩 밴드 2백만원대 **부채문**.

(아래 높은음자리표 위부터 아래로) 캐주얼로 흰색 동백꽃을 표현한 미니 까르띠에 화이트 링,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인사를 표현했다. 3백만원 **사벨 화인 주얼리**, 러브 브라운 슬릿에서 영감을 얻은 스크루 모티브의 러브 워딩 링, 1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2백60만원대 **까르띠에**,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꽃잎 모티브의 퓨어 그래스 링 1백80만원대 **타사키**, 블랙 오픈스로 동백꽃을 우아하게 표현한 미니 까르띠에 블랙 링 3백만원 **사벨 화인 주얼리**, 에디터 베이진

티파니 02-547-9488 타사키 02-3461-5558 루시예 02-512-6914 사벨 화인 주얼리 02-3442-0962 부채문 02-772-3508 까르띠에 1577-7266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BUTTERFLY

Sporty elegance

화시한 봄날 여자의 손목을 감싸줄 위치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좋다. 화려한 브레이슬릿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산뜻한 컬러, 경쾌한 디자인의 여성용 스포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워블로 빅뱅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워치** 브랜드 최초로 천연 고무 스트랩을 매치해 혁신을 불러일으킨 워블로 스포티한 디자인의 빅뱅 워치에 화이트 라바 밴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이중적인 매력을 담았다.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HUB4300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4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브레게 마린 크로노그래프 주얼의 워치의 우아함에 크로노그래프 기술을 결합한 마린 크로노그래프 여성용 워치 882888. 여성용 크로노그래프 워치의 새로운 장을 연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섹시워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머더 오브 펄 소재 다이얼이 우아함을,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와 토탈라이저 창이 스포티함을 표현한다. 4천9백만원대, 문의 02-6305-3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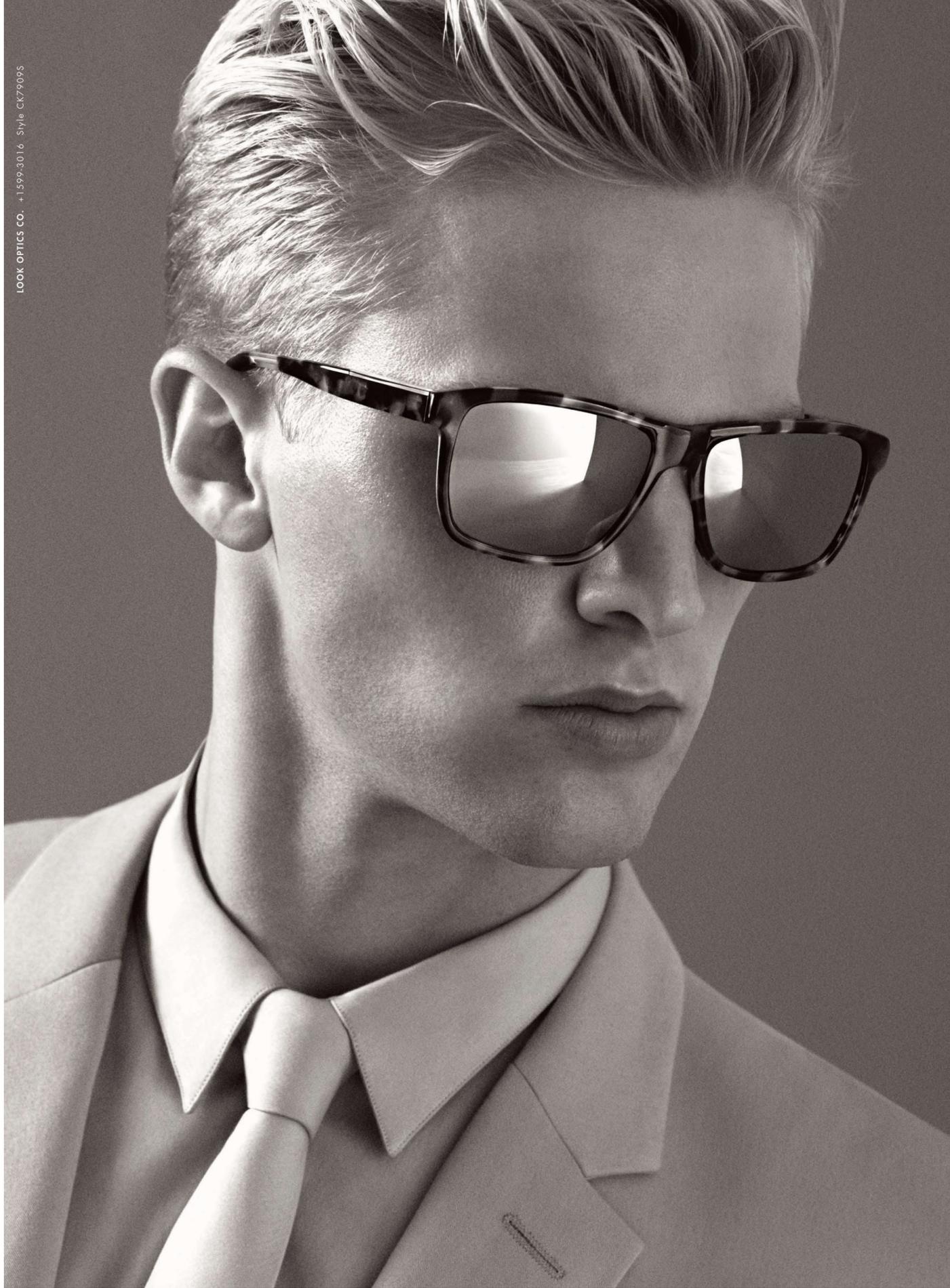
에르메스 클리퍼 19세기 범선의 창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베젤이 인상적인 에르메스의 클래식한 스포츠 워치. 케이스 사이즈 36mm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화이트, 퍼플, 블랙, 옐로우, 블루, 레드 등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을 매치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4백만원대, 문의 02-3448-0728

해리 윈스턴 에버뉴 스케이어드 A2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스케이 워치. 보닛이 다른 고층 빌딩들을 표현하기 위해 크고 작은 2개의 다이얼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해 듀얼 워치의 기능을 담았다. 오버사이즈 다이얼이 독특한 무드를 선사해 디자인이 남다른 시계를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3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까르띠에 로드스터 드 까르띠에 스포츠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로드스터 워치. 멋진 레이싱 카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면서도 모험심이 강한 여성을 위한 스포츠 워치로 쿼츠 무브먼트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6백80만원대, 문의 1566-7277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크로노그래프 레이다 정밀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화이트 세라믹 베젤, 구조적인 바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여성용 스포츠 워치. 케이스 사이즈 38mm,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3304를 장착해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5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샤넬 J12 화이트 클라시 사철을 대표하는 워치 J12의 가장 클래식한 버전. 최초로 세라믹을 하이엔드 워치에 적용한 브랜드인 만큼 클래식함과 스포티함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스포티한 디자인이 부담스럽다면 화이트 컬러와 같은 심플한 컬러를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7백16만원, 문의 02-3442-0962 에디터 배미진



LOOK OPTICS CO. +1599-3016, Style CK7909S

calvinklein.com

Calvin Klein
collecti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생로랑 글로스 블립페** 출시 때마다 폭발하는 입생로랑 립 제품인 최신작, 기존의 컬러에 네 가지 세이드를 추가했는데, 그중 '코랄 건도라'는 하얀 피부에 우아한 타치를 더하는 최상의 컬러다. 선명한 컬러와 립볼을 녹인 듯 입술을 매끈하게 만드는 텍스처가 일품이다. 4g 3만9천원대. 문의 080-565-5678

맥 프로연자 슬러 컬렉션 립스틱 늘 기대하게 만드는 맥의 컬러베어리언은 이번 시즌 뉴욕 디자이너 브랜드 프로연자 슬러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매력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패키지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매트한 질감부터 투명한 윤기를 주는 마무리까지 다양한 텍스처와 컬러로 구성된다. 3g 3만2천원. 문의 02-3440-2645

시세이도 리커 글로스 투명에 가까운 윤기가 특징인 일본 전통 칠기의 3중 코팅 구조를 도입한 글로스. 베이스 단계에서 입술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컬러가 완벽하게 밀착되도록 다져준 후 마무리 단계에서 글로시한 광택을 코팅한다는 콘셉트다. 코랄 핑크, 핑크 피치, 진한 로즈 바이올렛, 레드 등 여섯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7.5ml 3만3천원. 문의 080-564-7700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앤비사인 립스틱 컬러와 텍스처, 패키지 등 화장품 스타에서 까다로운 한국 여성들의 취향을 공략한 아시아 단독 출시 립스틱. 독특한 블루-피그먼트가 노란 안색을 화사하게 연출해주며, 촉촉하면서도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를 담았다. 아시아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16가지 컬러 중 '마리린 핑크' 컬러는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추천 컬러. 3.1g 3만9천원대. 문의 02-3440-2772

슈에무라 립트 인젤루프 한입 베어 물고 싶은 젤리톤에서 영감을 받아 입술과 양 볼을 생기 있게 물들이는 얇디 얇은 입술 위에 얇게 바르면 보습한 립트처럼, 여러 번 덧바르면 윤기를 머금은 립스틱처럼, 손가락으로 볼에 톡톡 두드리면 피오네이션과 자연스럽게 섞여 건강한 핑크를 만든다. 5.4ml 3만7천원대. 문의 080-022-3332

랑콤 글로스 인 리브 발레리나의 우아함과 생동감 넘치는 즐거움에서 영감을 얻은 프랜체 발레리나 컬렉션의 립글로스. 특허 기술을 적용한 폴리모 공물렉스의 투명한 오일 성분인 윤기가 도는 도톰한 입술로 만든다. 허큘루론이 풍부해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다. 6ml 3만6천원대. 문의 080-022-3332

컬랑 루즈 오토마피오 두껍을 열 필요 없이 한 손가락으로 쓱 버터를 밀어 내리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루즈 오토마피오의 새로운 버전. 아시아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섯 가지 핑크 컬러로만 선보인다. 입술 온도에 따라 녹는 것이 다른 특수 왁스 성분인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발리면서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준다. 크리스탈 피그먼트는 백탁현상이 선명하게 컬러로 발색된다. 3.5g 4만5천원. 문의 080-343-9500

다올 아티스트 플루이드 스틱 투명한 케이스의 립스틱처럼 보이지만 보틀을 열면 애플 라이터에 컬러가 묻어 나오는 하이브리드 립 제품. 입술 기온대에 톡톡 두드리면 선명하게 발색되며, 가볍게 마무리되는 감각적인 텍스처가 특징이다. 강렬한 립 마커 피그먼트와 빛을 반사시키는 글로스 피그먼트가 하나의 캡슐에 담겨 아침에 바르고 나온 입술 색이 하루 종일 유지된다. 5.5ml 4만원. 문의 02-3438-9631

샤넬 레브르 생디앙트 샤넬에서 율봉 여성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추럴 누드, 핑크-레드, 바이올렛-플럼 컬러를 내세운 바리아이션 컬렉션을 완성했다. 특히 '레브르 생디앙트'는 플럼 컬러에 오묘하게 반짝이는 블루 톤을 더해 관능적인 입술을 연출한다. 같은 컬러로 립스틱과 립 펜슬 등도 있다. 5.5g 3만9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이예진**

it lip Color

여자의 봄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드러운 베이비 핑크, 상큼한 코랄, 경쾌한 핫핑크 등 사랑스러운 스프링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 입술 만들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雪花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속부터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얻는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음의 기운이 부족해져, 피부의 윤기를 잃게 됩니다. 피부 속 부족한 기운을 채워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귀한 원료들의 조화로 탄생한 자음단이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까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맞춰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겉으로만 빛나는 윤기를 넘어 피부 깊이 차오르는 윤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로, 피부의 격이 한 층 더 높아집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Spring scents

봄의 나른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나날들,
이 평화로운 순간을 함께할 산뜻한 향의 향수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7월에 유행어 시계 방향) **아쿠아 디 파르마 블루 메디테라네오** 이탈리아의 시르데나섬에서 영감을 받아 베르가모트, 주니퍼 베리, 세이지 향기로 아탈리아 해변의 따뜻함을 담았다. 75ml 14만5천원, 문의 02-517-5218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퍼퓸 베르가모트와 오렌지, 파슬리, 화이트 마스크가 어우러진 여성스러운 향수. 보석처럼 정교하게 만든 향수병 안에 담긴 프크 빛 액체는 강한 느낌의 향기는 모두 배제하고 순수한 향기만으로 불연성향 특장이다. 35ml 9만5천원, 문의 080-332-2700

로제 칸조 울프 미러 에디션 빛을 담은 물을 콘셉트로 만들어 패카지 안쪽이 거울처럼 보이는 획기적인 향수. 자몽, 바질의 시원한 향기와 세이지, 주니퍼 베리의 부드러움, 베티베르 베이스의 우디 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50ml 7만4천원, 문의 080-344-9500

까르띠에 데클라타리움 오 드 투왈렛 에센스 남성적인 스퀘어의 강렬한 보틀 디자인이 인상적인 시크한 향수. 일본적인 향수에 사용하지 않는 페퍼에 장미 향, 시더우드의 강렬함까지 담은 럭셔리한 남성용 향수로 흔하지 않은 향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100ml 14만5천원, 문의 1566-7277

존 바비토스 아티산 아쿠아 민다린과 라벤다, 제라늄, 재스민 등 익숙하고 상쾌한 원료들로 신선한 향기를 완성한 향수. 이끼와 파슬리의 진흙이 매력적이다. 75ml 8만2천원, 문의 02-3443-1805

비에도도 블랑쉬 2006년 스페셜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조향사 올리비아 지로 베디, 제롬 에마크이 참여해 럭셔리 컬트 향수로 인정받은 비에도도의 대표 오 드 퍼퓸, 블랑쉬. 원료의 수를 제한해 향기의 존재감이 뛰어나고 순수하지만 모던한 느낌을 담았다. 바이올렛의 가볍고 부드러운 향기가 클래식하다. 50ml 18만5천원, 문의 02-3479-1688

빈방 무수 빈방 1964년 탄생한 향수 '무수 빈방'의 현대적인 버전. 시트러스와 우디 향을 담은 이로미틱 향수의 원조로 상쾌한 바베나, 대항문 로즈메리와 페퍼, 진지, 세이지를 담은 하트 노트, 시더우드와 마스카가 클래식한 향기를 완성했다. 100ml 12만5천원, 문의 080-800-8809

보타가 베타 에센스 아로마리크 순수하면서도 우아한, 스윗 지-카기엔 언뜻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운 향기를 담은 향수. 여름날의 신선함, 해변에서의 평화로운 기억을 표현했다. 50ml 12만6천원, 문의 02-3436-7881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 조 클렉시움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가지 전설적인 공간, 일람브라 궁전과 에펠 동산,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바빌론에 바치는 찬사를 담은 향수. 100ml 21만원대, 문의 080-022-3332 에디터 배미진

ETRO



Jacquard

wonder Clutch

잇 백, 잇 슈즈의 시대가 지난 후, 조금은 과감해진 패션 트렌드에 걸맞게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한 클러치 백.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클러치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용적인 소재의 페이퍼트 레더 소호 클러치. 15x27cm, 1백50만원대 **구찌**.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메가 히트한 디자인의 송아지가죽 소재 네 온 핑크 클러치. 27x14cm, 1백50만원대 **생로랑**. 이브닝 백으로도 손색없는 양가죽 소재 플라워 프린트 미니 클러치. 18x11cm, 2백70만원대 **지젤시**.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터 백을 재해석한 클러치. 수납력이 좋다. 32x18cm, 1백50만원대 **발렌시아가**. 사철 향수 보틀을 그대로 재현한 독특한 디자인의 클러치.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13x20cm, 가격 미정 **샤넬**. 겨울처럼 보이는 스틸 소재로 독특한 디테일을 완성한 새로운 클러치 컬렉션. 9.5x17cm, 블랙 컬러 3백만원대, 스킨 컬러 2백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브랜드의 장인 장인이 느껴지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뽀뽀 소재를 매치해 독특한 무드를 완성한 그린 컬러 클러치. 30x17cm, 3백90만원대 **고야드**. 미니멀한 컬러 매치가 그래픽적인 송아지가죽 클러치. 19x29cm, 1백35만원 **펜디**. 에디터 **베미진**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고야드** 02-3448-4778 **발렌시아가** 02-542-1937 **생로랑** 02-3438-7627 **펜디** 02-2056-9022 **구찌** 1577-1921 **지젤시** 02-517-7560 **샤넬** 02-543-8700



24/7 enjoy shopping at SWAROVSKI.COM



Miranda Kerr


SWAROVSKI
extraordinary for every day

공정무역 파트너십

light Act

문을 박차고 폴짝폴짝 뛰어 나가고 싶은 계절. 투박한 고무 굽과 산뜻한 컬러, 다채로운 패턴을 입은 슬림은 슈즈가 우리 곁에 왔다. 진한 인디고 데님은 물론 미디스커트, 험렁한 크롭트 팬츠와도 멋지게 어울리는 슬림은 슈즈와 함께 봄바람을 만끽해볼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양한 컬러의 니트를 얹은 투박한 슬림은 슈즈. 발뒤꿈치에 LOVE가 쓰여진 그로그랭 장식으로 유틸리티를 더했다. 가격 미정 **셀린느**. 밑창까지 새롭힌 슬림은 슈즈는 어떤 룩이든 깨끗하게 정돈해준다. 스타드로 전체를 장식했지만 과해 보이지 않는다. 1백만원 **필립 플라멩**. 편평 장식이 있는 레오파드 패턴의 슬림은 슈즈 7만5천원 **루이 비통**. 가죽 트러닝이 돋보이는 상큼한 옐로 컬러 슬림은 슈즈 69만원 **칼 라가렛트 by 블랙**. 호족한 알코가 특징인 청량한 블루 컬러 스웨이드 슬림은 슈즈. 밴딩 장식이 있어 신고 벗기 편하다. 60만원 **미우미우**. 부드러운 채린 장식과 블랙 & 화이트 무늬가 빛나는 세련된 조합이 멋스러운 슬림은 슈즈. 1백28만원 **주세페 자노티**. 시원한 베사이 눈에 띄는 스트라이프와 발등의 구슬 장식이 귀여운 느낌을 주는 슬림은 슈즈 84만원 **마더 오브 펄 by 본다삼**. 미니멀한 데님 소재 슬림은 슈즈 84만원 **지미추**. 반트러닝 느낌의 레오파드 패턴 슬림은 슈즈 202만원 **다 아쉬**. 에디터 **이예진**

필립 플라멩 02-544-9132 **셀린느** 02-540-0486 **루이 비통** 02-3432-1854 **블랙** 02-6905-3740 **미우미우** 02-3218-5341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본다삼** 02-542-8006 **아쉬** 070-8783-8686 **지미추** 02-3443-9469

스타일링: 유원정



www.elord.com / tel 02.3677.8617



Rock Chic
화이트 컬러의 볼드한 라버 솔에 실용적인 블랙 송아지가죽을 매치해 미니멀하게 완성한 펑키(Punky), 멀티 벨트 스트랩과 웨지힐은 이번 시즌 가장 각광받는 록 시크 무드를 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다. 40만원대 **아쉬**.



Platform Slip-on
(왼쪽부터) 양가죽 소재에 체인 장식을 더한 시크한 조(Joe) 30만원대, 편안한 라버 솔에 크래 처리한 실버 양가죽을 매치한 정글(Jungle) 30만원대, 슈즈를 캔버스 상아 이그조틱한 사파리 프린팅을 더한 정글 비스(Jungle Bis) 20만원대 모두 **아쉬**.

Shoes on top

셀러브리타가 먼저 알아본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아쉬(ASH). 최신 트렌드를 감각적인 빈티지 스타일로 표현한 2014년 아쉬의 뉴 컬렉션은 모든 룩을 업그레이드해줄 완벽한 아이템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otic Hidden Wedge
아쉬의 베스트셀러 히든 웨지힐 스니커즈가 이번 시즌 로 톱 히든 웨지힐로 변신했다. 네온 컬러 스트드와 파이론 프린팅이 이그조틱한 무드를 전해주는 데라이어 비스(Delire Bis), 부드러운 송아지가죽과 6cm 웨지힐의 조화로 활동성이 뛰어나다. 각 40만원대 모두 **아쉬**.



Chunky Heel
여성의 발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감각적인 디자인의 퀸-((Queenie), 편안한 아쉬의 강점을 그대로 담아 8cm의 굽 높이에도 안정적이고 착용감이 뛰어나다. 각 40만원대 모두 **아쉬**. 문의 070-8783-8686 에디터 **배미진**

Titleist[®]
Est. 1935

PREMIUM COLLECTION



Handcrafted Elegance | Performance Heritage | Limited Edition

EST1935.TITLEIST.CO.KR
TITLEIST BRAND STORE DOSAN 02-3443-2241

Block the sun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기본이다. 바르지 않은 듯 가볍고 싼맛한 텍스처, 아이가 발라도 될 만큼 순한 성분과 잡티를 완화하는 스킨케어 효과, 물과 땀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까지, 자외선 차단제의 진화는 계속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뒷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 크리미 솔리제 아이가 사 용해도 좋은 만큼 안전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 별겨, 참기 림, 올리브 오일, 알로에 쥬얼 자국이 적은 순한 성분만 담았다. 얼굴은 물론 몸 전체에 발라도 무방하며, 휴대가 간편한 핸디한 사이즈로 레포츠 활동 시 수시로 바를 수 있다. 100ml 8만2천원, 문의 02-546-1612

이모레파시픽 트리플 디펜스 선 프로텍터 SPF 50 PA+++ 시원한 물방울 감촉의 워터프루프 선 프로텍터, 미세 입자기 자외선 차단 성분과 피부 보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가 피부에 바른 후 손놀림에 의해 터져 나오는 독특한 포플러가 특징이다. 피부 보호 효과가 뛰어난 다섯 가지 아미노 보타니컬 성분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링 효과를 발휘해 과열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60ml 8만원, 문의 080-023-5454

다들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UV 베이스 SPF 50 PA+++ SPF 50 PA+++의 미세 입자 필터를 함유해 8시간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다량의 핵심 성분인 로즈 드 그랑빌 백자가 피부 세포에 직접 작용, 자외선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부 속 미세 염증을 케어해 피부 속까지 투 명하게 가루준다. 생사하게 반짝이는 피그먼트를 함유해 바르는 즉시 피부 톤 이 한층 살아난다. 30ml 13만2천원, 문의 02-3438-9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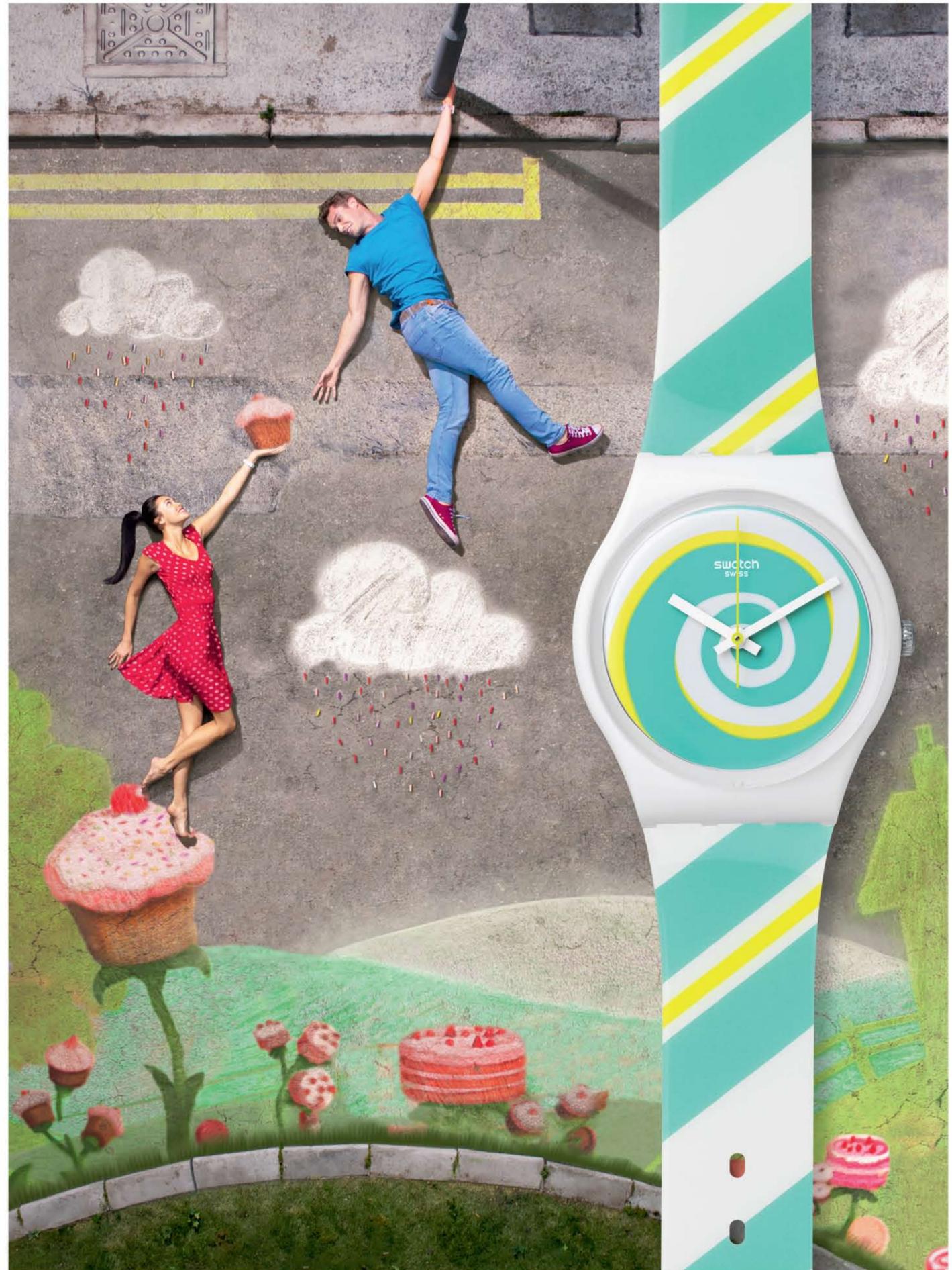
시세이도 어벤 인바이먼트 UV 프로텍터 엑스트라 마일드 SPF 30 PA+++ 수퍼베일 UV 360° 테크놀로지가 피부의 미세한 골극을 놓치지 않고 선크림을 균일하게 분포시켜 어떤 각도에서든 자외선을 강력히 차단한다.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 흡수제, 알코올, 향료, 방부제를 일절 함유하지 않아 민감한 성인 피부는 물론 아기 피부에도 바를 수 있으며, 피부 내 보습 성분인 이노시신을 풍부하게 함유해 최적의 보습력을 유지한다. 특수 코팅 피우더를

배합해 물, 땀에는 잘 지워지지 않지만 일반 세정제로는 쉽게 지워져 피부에 자극이 없다. 50ml 5만3천원, 문의 080-564-7700

에스티 로더 사이버화이트 HD 어드밴스드 브라이팅 UV 프로텍터 SPF 50 PA+++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에 맞게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로 UVA와 UVB, 스트레스, 노화, 환경 공해 등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잡티와 변색을 예방한다. 강력한 화이트닝 스킨케어 성분의 작용으로 착색된 죽은 각질 세포와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없애 피부를 더욱 빛나게 한다. 또 감바섯의 생성을 가속화하는 멜라닌 주머니를 붕괴시켜 피부 잡티에 집중적으로 작용한다. 매우 가볍고 번들거리지 않는 싼맛한 포플러가 료본이다. 30ml 6만원, 문의 02-3440-2772

샤넬 UV 에센셜 SPF 50/PA+++ 번들거림 없이 싼맛하고 가벼운 텍스처의 오일 프리 에센셜 타입 자외선 차단제. 색소침착과 광노화의 주요 요인인 자외선과 활성산소, 오염 등의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해 유해 물 질로부터 피부 안팎으로 완벽히 보호한다.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어 마치 바르지 않은 것처럼 싼맛한 마무리감을 선사해 끈적임을 싫어하는 남성에게도 추천한다. 30ml 6만2천원, 문의 080-332-2700

클라린스 UV 플러스 HP 데이 스크린 하이 프로텍션 SPF 40 클라린스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공해, 산화작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3중 보호 시스템을 지원한다. 유기농 쉐일루프 멜론에서 추출한 과산화물 제거 효소를 담아 피부 속에서 진행되는 산화노화 화 작용까지 차단 하는 것이 핵심 효능. 또 100% 미네랄 자외선 차단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함유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0ml 5만9천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PAstry CHEFS
SPRING - SUMMER COLLECTION 2014

swatch[®]

editor's Pick

따스한 봄별을 따라 배낭 메고 산과 들로 떠나고 싶은 4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제품을 공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스타 마리아 노벨라 멜로그리노 왁스 티블렛 향수, 라빙 퍼플로도 유명한 스타 마리아 노벨라의 대표 향인 멜로그리노를 왁스 타입으로 압축한 방향제. 방향 효과가 좋아 옷장, 서랍, 차 안에 두면 향긋한 향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2개입 5만3천원. 문의 02-546-1612_by 에디터 권유진

메이크업 포어미스트 피니셔 HD 블러쉬 부드러운 크림과 피우더 중간 타입의 텍스처가 피땀결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데, 인위적인 색소감이 아이라이프나 자외선 차단용 홍조를 따게 해준다. 수중은 돛 스프레이로 메이크업에 제격. 2.8g 3만9천원. 문의 02-3438-5426_by 에디터 이예진

슈에무라 포어미스트 프레스시 클렌징 오일 가장 클래식한 클렌징 오일의 대명사로 마니악이 형성된 제품이기에 만족도도 높다. 수년간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멀티타가 확실하다. 눈가에 사용해도 따갑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장점. 블랙 헤드, 번들거림에도 효과적이다. 450ml 9만2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배미진

리프레이 울트라 프로텍션 스틱 아이 & 립 & 노즈 SPF 40 럭셔리 브랜드임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한 멀티 자외선 차단제. 자국이 적어 민감한 부위에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다. 10g 9만2천원. 문의 080-511-6626_by 에디터 배미진

시세이도 바이오 퍼포먼스 수퍼 코렉티브 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탄력은 동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시세이도의 안티에이징 기술이 집약된 이 아이크림은 눈가 피부의 각 층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의 생성과 유지 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마치 수분 필러로 눈가 윤곽을 개선한 듯 탄력을 끌어올려 눈가 피부를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준다. 15ml 9만2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권유진

엘랑 오가드 임페리얼 마스크 텍스처만으로도 감동적인데 효과까지 대단한 수면 마스크 팩. 오가드 컬렉션의 모든 제품이 좋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 장들기 전에 바르면 다음 날 맑은 얼굴을 만날 수 있다. 75ml 46만5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배미진

리쉬 올리브 브랜치 샤워 젤 샤워할 땀을 뽀얀데 이빨개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다. 리쉬 올리브 오일과 포도 잎 달걀 단백 함유해 메마른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샤워 젤. 부드럽고 향긋한 지중해의 향기와 풍부한 부드러운 거품이 샤워 시간을 즐겁게 해준다. 250g 2만8천원. 문의 1644-2357_by 에디터 권유진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핸드크림 같은 라인의 제품인 엑스트라 페이스 제품만큼이나 보습력이 뛰어난 분 아이라이프도 없고 매우 가벼워서 신뜻하게 흡수된다. 프라임 보태-립 향으로 바르면 기분까지 신뜻해진다. 사무실 책상 위의 필수품이 아닐 수 없다. 50ml 4만2천원. 문의 02-3440-2781_by 에디터 배미진

SK-II 스킨 시그니처 아이크림 시그니처 크림만큼이나 애용하는 같은 라인의 아이크림. 텍스처를 손등에 덜어 쪽쪽 눌러보면 그 끈적함을 알 수 있는데, 몇 번 두드리고 나면 바르듯 흡수되고 촉촉함을 남겨 잔주름이 행방을 잃는다. 15g 11만원. 문의 080-023-3333_by 에디터 이예진

클라린스 더블 세럼 독특하게 두 가지 안티에이징 세럼을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탄력 세럼. 일단 한 통을 다 사용하면 탄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고, 끈적이는 텍스처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잘 맞는 제품이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효과 또한 뛰어나다. 30ml 12만원. 문의 080-542-9052_by 에디터 배미진

인생로망 피오니 크리쉬 아이세도 팔레트 정원이 흐드러지게 핀 잔여꽃을 표현한 세련된 케이스부터 백 정 샹구, 핑크, 브라운 등 화려한 컬러와 클래식한 컬러를 조합한 다섯 가지 컬러의 아이세도가 눈매를 우아하게 뽐낸다. 7.5g 8만원. 문의 080-565-5678_by 에디터 이예진

샤넬 보미 아날 스프레이 세럼 에-자이징 멀티-프로텍션 컨센트레이트 미스트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는 편견을 버릴 것. 이 미스트는 단순히 수분만 부여하는 다른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 세럼의 효능을 담은 미스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피부에 분사한 후 손으로 두들겨 흡수시키면 피부가 금세 부드럽고 촉촉해진다. 50ml 13만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권유진

에트로 자카드 오드 투왈렛 재스민과 일랑일랑으로 빛어낸 따스한 노트는 물론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느껴지는 비누 향을 담은 진향까지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생동감 넘치는 꽃송이가 담긴 패키지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100ml 16만5천원. 문의 02-3443-5050_by 에디터 이예진

다들 어딴트 블루마이드 스틱 립글로소드, 립 레커도, 립스틱도 아니다. 강렬한 발색과 글로시함, 완벽한 밀착력을 자랑하는 신개념 립 제품. 발색이 오래 지속되는 롱 홀드 피그먼트가 캡슐화되어 있어 한 번의 터치로도 완벽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5.5ml 4만원. 문의 02-3438-9631_by 에디터 권유진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여름휴가 BIG BONUS

성인 111만원대부터 에어패키지(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발리, 푸켓, 체러팅, 빈탄, 카비라, 계림, 몰디브 카니
출발일: 2014년 4월 29일 ~ 10월 28일 예약마감: 2014년 4월 30일

객실 상황 및 유가 변동으로 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 3452 0123
www.clubmed.co.kr
f /clubmedkorea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간 교통편
- 일차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인력한 객실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Spring Fever

맛을 아는 트렌디한 남자들이 모였다. 강렬한 패턴, 모던한 디자인과 산뜻한 컬러까지, 올봄 남자들의 패션은 더욱 신선하다. *photographed by jang duk hwa*



에메랄드 블루와 다즐링 블루를 기 컬러로 한 유아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캄백선 모두 에르메스.

로맨틱한 감성과 럭셔리한 스포티즘의 조화로 완성한 캄백선 모두 구찌.





베이지 가죽 정장 토츠,
블루 패턴 니트 폴스미스,
다크 그린 팬츠 클럽 모나코.



블랙 가죽 재킷 토츠, 플라워
패턴 셔츠와 팬츠 모두 지방시 by
리카르도 티시, 샴버 메탈 시계
폴스미스 by 갤러리아블락.



블랙 재킷 휴고 보스,
블루 패턴 셔츠 폴스미스,
베이지 팬츠 클럽 모나코.



블루 재킷, 오픈 블루 셔츠,
그레이 패턴 팬츠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블랙 가죽
토트백 보테가 베네타,
안경 트리타.

(왼쪽부터 차례대로) (모델 1) 코발트 블루 재킷과 팬츠, 베스트, 스카프, 화이트 스니커즈 모두 구피, (모델 2) 라이트 블루 재킷과 팬츠, 셔츠, 타이 모두 광방,
화이트 버클 슈즈 생모랑, (모델 3) 블루 더블 재킷과 팬츠, 스트라이프 셔츠 모두 플체안기바나, (모델 4) 블루 수트, 슬리브리스 톱 모두 페라기오, 화이트 슈즈 올세인트.



화사한 봄날을 연상케 하는 원색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컬렉션 모두 **버버리 프로섬**.



(왼쪽부터 차례대로) (모델 1) 화이트 니트 톱 **Z제나**, 선글라스 **트리티**, (모델 2) 블랙 니트 톱 **Z제나**, 선글라스 **트리티**, (모델 3) 노칼라 화이트 셔츠, 블랙 베스트 모두 **Z제나**, 선글라스 **트리티**, (모델 4) 화이트 톱과 가죽 재킷 모두 **테라기오**, 선글라스 **트리티**.



(왼쪽부터 차례대로) (모델 1) 화이트 셔츠, 그레이 체크 니트, 화이트 팬츠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블랙 로퍼 **올세인츠**, 블랙 플로 타이 **생로랑**, (모델 2) 패턴 톱과 재킷 모두 **질 샌더**, 블랙 와이드 팬츠, 블랙 슈즈 모두 **프라다**, 왼손 검지와 중지엔 **킨반지** 모두 **생로랑**, (모델 3) 메시 소재 슬리브리스, 패턴 셔츠, 블랙 & 화이트 점퍼, 블랙 데님 팬츠, 블랙 앵글부츠, 오른손 검지와 중지엔 착용한 **빈지** 모두 **생로랑**, (모델 4) 블랙 체크 패턴 톱, 블랙 & 화이트 체크 팬츠 모두 **보테가 벤테나**, 블랙 앵글부츠, 오른손과 왼손엔 착용한 **빈지** 모두 **생로랑**.



트로피컬 무드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컬렉션 모두 프리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모델 1) 블랙 & 버건디 컬러 블록 재킷과 팬츠 모두 디올 올므, 화이트 셔츠 후고 보스, 블랙 슈츠 프리다. (모델 2) 핑크 슬리브리스 셔츠, 메탈릭 소재의 메시 블루중 점퍼, 블랙 팬츠, 블랙 타이 모두 량방, 실버 장식의 블랙 슈츠 디올 올므. (모델 3) 버건디 컬러 재킷과 팬츠, 아너틀, 화이트 셔츠 모두 디올 올므, 블랙 슈츠 에르메스. (모델 4) 네이비 트랜치코트, 블랙 와이드 팬츠 모두 량방, 파이프 앵글부츠 생로랑.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한지선
메이크업 공혜련
모델 오안, 손민호, 최민수, 홍윤재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진성훈, 문진호
에디터 권유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질 샌더 02-546-3067 프리다 02-3218-5331 생로랑 02-3438-7627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구찌 1577-1921 량방 02-3438-6186 몰체안치바나 02-3444-0077
롤 스미스 02-3447-0278 페라기모 02-2140-9641 디올 올므 02-518-0270 에르메스 02-544-7722 자헝시 by 라카르도 티시 02-517-7560 갈루리아플라크 02-3284-1300 토즈 02-3438-6008
클럽 모노코 02-777-1623 후고 보스 02-2014-9178 바버리 프로섬 02-3485-6583 Z 제나 02-546-6287 울세인츠 02-3446-7725 트리터 02-3446-8556

Gold Impact
에스티 로더의 시그니처 컬러인 진은 네이비와 골드 콤비네이션으로 완성한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주목할 것. 썬 워터의 골드 명판과 케이스 내부에 로고를 새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휴대하거나 바르는 순간 모두 만족스럽다. 각 3.1g 3인1천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Envy Me, Envy Shine
아시아 여성들의 피부 톤에 어울리는 16가지 컬러 중에서도 엄선한 다섯 가지 컬러를 선보인다. 특히 국내 단독 출시하는 '미랑 핑크'는 한국인 특유의 노란 얼굴빛을 커버하고 칙칙해 보이는 안색을 화사하게 해주는 최상의 컬러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선명한 코랄색의 사라벌 선 320호, 진달래를 연상시키는 델리카트 310호, 화사한 핑크 톤의 미랑 핑크 480호, 밝은 체리빛의 블러섬 브리이트 250호, 우아한 핑크빛의 프리티 퍼펙트 230호 각 3.1g 3인1천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Love lips

새로운 시즌을 맞아 립 제품이 각축전을 벌이는 봄, 에스티 로더의 최신작 '퓨어 컬러 엔비 사인 립스틱'은 한국 여성들을 위한 맞춤 립스틱이라는 점에서 단연 주목할 만하다. 질투를 부를 정도로 칙칙한 얼굴빛을 화사하게 살려주는 컬러와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 반짝이는 윤기가 특징인 이 매력적인 제품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reamy Texture
얇고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편안하게 입술을 감싸는 크리미한 텍스처가 돋보인다. 감칠맛난 8인1천원대 덕분에 맨 입술에 바로 발라도 주름 사이사이를 매워 자연스럽게 컬러가 살아난다. 건조하다고 느껴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던 이들도 흡족해질 듯. (우부터) 밝은 체리빛의 블러섬 브리이트 250호, 선명한 코랄색의 사라벌 선 320호, 한국 여성들을 위한 화사한 핑크 톤의 미랑 핑크 480호(한국 단독 출시) 각 3.1g 3인1천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Modern Package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나 선명한 컬러, 윤기 뽐만 아니라 패키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유려한 곡선 형태로 그림감이 뛰어난 미끄러워 질러 실룩만 밀어 올려도 열려 하는 강박관 소리라 쉽게 여닫는다. 각 3.1g 3인1천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문의 02-3440-2772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모든 각도에서 피부를 완벽히 보호

외출하기 30분 전, 5백 원짜리 동전 크기로 덜어낸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2~3시간에 한 번씩 이를 덧바르는 당신. 이처럼 자외선 차단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실천도 하고 있지만 피부 손상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여기서 놓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피부의 미세한 굴곡이다. 보통 일반 선크림은 피부의 굴곡에 따라 균일하게 발리지 않거나 요철과 모공에 끼어 자외선이 통과하는 빈틈이 생긴다는 사실. 시세이도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부의 모든 미세한 굴곡에 균일하게 발려 모든 각도에서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슈퍼 베일-UV 360°'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다. 피부에 아주 얇은 막을 형성해 피부 표면의 미세한 굴곡 사이를 매끈하게 채워 자외선이 침투할 수 있는 작은 빈틈도 완벽히 차단하는 것. 이는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시세이도에게 가능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의 브랜드에서 사용 목적과 피부 타입에 따른 10개가 넘는 라인업의 자외선 차단제를 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또 하나 주목해 야 할 핵심 기술은 피부 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프로펜스 셀(Profense Cell)'이다. 이는 자외선으로 유발되는 세포와 DNA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하는 한편, 피부 세포를 파괴하는 효소 활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해 피부를 안팎으로 강력하게 보호한다. 자외선 차단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력과 땀샘을 수 없다. 시세이도의 워터 레지스턴스 효과는 땀과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매우 강력하다. 수분을 잃어가는 특수 코팅 파우더를 배합해 피부에 물기가 남지 않고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 하지만 일반 클렌저로는 쉽게 지워져 자극 없이 쉽게 클렌징할 수 있다는 점도 시세이도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스마트 선크림

피부 타입에 맞는 다양한 스킨케어 라인이 있듯 자외선 차단제 역시 상황,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보호하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선호한다면 시세이도의 베스트셀러 자외선 차단제인 '시세이도 파란 팩트'를 추천한다. 야외 활동 시 메이크업을 한 피부 위에 선크림을 덧바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땐 피부의 피지를 정돈하고 피부 톤을 고르게 커버하는 파란 팩트를 스펀지로 발라주면 자외선 차단 효과와 간편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작은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는 '시세이도 파란 스틱' 역시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립스틱을 바르듯 스틱을 얼굴에 쓱쓱 바르면 하면 자외선 차단과 메이크업이 한 번에 해결된다. 실감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가볍고 보습보송해 여러 번 덧발라도 몽차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촉촉하고 맨 얼굴같이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하려면 '시세이도 파란 파데'가 제격이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파운데이션으로, 수분감이 가득한 텍스처와 자연스러운 컬러,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광채 효과가 돋보인다. 시세이도는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 흡수제, 알코올, 향료,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아 민감한 성인 피부는 물론 야기가 사용해도 좋은 자외선 차단제도 선보인다. '시세이도 어벤 인바이런먼트 UV 프로텍터 엑스트라 마일드 SPF 30 PA++++'가 그 주인공으로, 민감한 피부에 자극 없이 편안함을 주는 엄선된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피부 내 보습 성분인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최적의 보습력을 자랑하고, 치유아우린 성분이 피부 톤이 칙칙해지는 것을 예방한다. 모든 피부 트러블의 원흉은 자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60° 자외선 절통 방어, 물과 땀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과 순한 성분을 갖춘, 내 피부 타입에 최적화된 선크림을 찾고 있다면 가까운 시세이도 매장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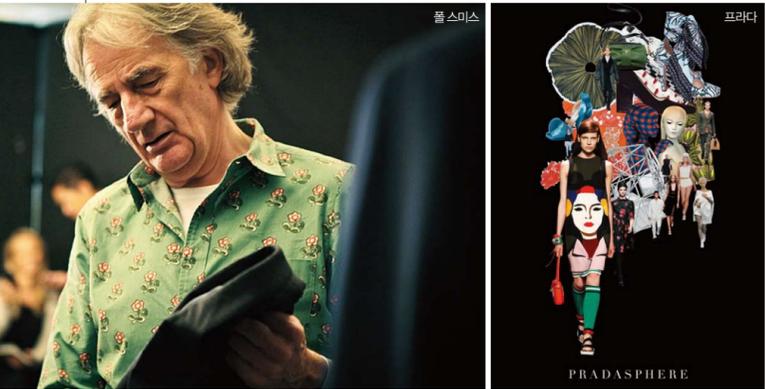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세이도 파란 스틱 (SPF 36 PA++++) 9g 3인1천원,
시세이도 어벤 인바이런먼트 UV 프로텍터
엑스트라 마일드 SPF 30 PA++++ 50ml 5인1천원,
시세이도 파란 팩트 (SPF 35 PA++++) 12g 5인1천원,
시세이도 파란 파데 (SPF 43 PA++++) 30ml 5인1천원.



complete Protection

아무리 효능이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지라도 피부에 빈틈이 생기면 소용없다. 자외선 차단 지수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의 미세한 굴곡까지 매끈하게 바르는 것. 1백여 년의 역사, 수백만 개의 자외선 차단제 판매 기록을 보유한 자외선 차단제 전문 브랜드 시세이도는 세계 최초로 360° 모든 각도에서 피부를 빈틈없이 보호하는 완벽하고 혁신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HOWROOM



FASHION



프라다 프라다스피어 전시 다가오는 5월, 프라다와 영국 해리백백화점 (Pradasphere) 전시를 개최한다. 원도 디스플레 이로 유명한 해리백백화점은 지난 1백 년 동안 선보인 프라다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해리백백화점만을 위해 제작한 의상, 가방, 슈즈 그리고 액세서리 라인을 포함한 캡슐 컬렉션을 소관도에 전시할 예정이다. 해리백백화점 4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프라다가 선보인 아이코닉 컬렉션, 스페셜 프로젝트, 실험적인 컬렉션에서 선택된 선까지 광범위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다. 문의 02-3218-5331

폴 스미스 콜롬비아 전시 폴 스미스가 2014 S/S 런던 컬렉션을 통해 올 마이크로와 진정한 컷 컬라베이션을 공개했다.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컬렉션에 메리노 울을 사용해온 폴 스미스가 전 세계에 메리노 울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4 올 마이크로 컴퍼니의 콜 울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 콜 울 홍보대사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폴 스미스 드레스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4월 중순까지 2주 동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폴 스미스 2014 S/S 런던 컬렉션과 콜 울 관련 컬렉션 영상을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2-6957-5815

타미 엘 스킨 그레이스 백 타미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아 체인 솔더 라인인 타미 그레이스 백을 장 아가죽으로 선보인다. 세로 방향의 장아죽 텍스처로 볼륨감이 느껴지며, 가방 가운데 잠금 장치와 볼드한 체인 디테일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부각했다. 이번 룩에나 활용하기 좋은 다크 네이비 컬러로 선보이



며, 분리형 내부 공간은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전국 타미 매장 및 한정에서 운영하는 가방 전문 온라인 쇼핑몰, 베스트브랜즈백에서 만날 수 있다. www.bestbrandbag.com, 02-3416-4393

타이틀리스트 스타프 스탠드 백 타이틀리스트가 '스타프 스탠드 백'을 처음 출시한다. 이번 시즌에는 애덤 스콧, 웨일슨 등 전 세계 주요 투어 선수들이 애용하는 타이틀리스트 투어 백에 자른 선이 보여 트렌드로 급부상한 '스타프 스탠드 백'을 접목한 것으로, 클럽 투입구에 듀얼 핸들과 방수 후드를 장착했다. 또한 2.7kg의 가벼운 무게와 자물 스탠드로 이동 시 편리함을 더했다. 문의 02-3014-3800

타미리 맨 제이든 타미리 맨에서 2014 S/S 시즌을 맞이해 신선했던 퍼스텔컬러의 서머 재킷 '제이든 (Jaiden)'을 제안한다. 이 재킷은 타미리 맨 특유의 클린한 실루엣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담은 아이템으로, 리본 소재와 가벼운 컬러감이 돋보인다. 화이트 나미비, 아이보리 컬러 등 베이직한 컬러의 티셔츠에 코튼 팬츠를 매치하거나 얇고 부드러운 리본 셔츠와 스카프를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44-0065

아쉬 슬림은 스니커즈 정글 아시가 자유분방한 아쉬 걸의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플랫폼 슬림은 스니

커즈, 정글을 출시한다. 스릴 넘치는 스케이트에게 영감을 받아 메가 플랫폼 러버 솔로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했으며, 사파리, 레오파드, 카무플라주 등 이국적인 소재와 프린팅을 출시한다. 갤러리아 WEST, 현대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 대백몰라지, 아사시엔을 비롯해 유명 편집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70-8783-8686

펜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참여 펜디가 웨스 앤더스 감독의 새로운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위해 코트를 비롯한 패션 아이템 제작에 참여했다. 극중 주연으로 등장하는 에드워드 노튼이 착용한 아스트리안 소재의 일리타리 스타일 더블브레스트 코트와 블랙 린크 퍼 컬러의 핸드 페인팅 프린트 가운보이는 탈다스 윈턴의 실크 벨벳 케이프가 대표 아이템이다. 문의 02-2056-9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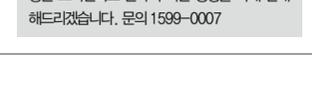
만스웨어 원 핏 피케 셔츠 만스웨어에서 2014 S/S 시즌을 맞아 '원 핏 (One Thing) 피케 셔츠'를 새롭게 출시한다. 2011년부터 선보인 원 핏 피케 셔츠는 만스웨어의 아이코닉 아이템으로, 경쾌한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에 오리진 핏 핏팅 로고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다. 올해 출시한 원 핏 피케 셔츠는 골프장의 18홀을 뜻하는 18가지 다양한 컬러의 기본 핏 피케 셔츠와 아웃과 소매에 스트라이프 배색을 넣은 스포티한 스타일의 핏 피케 셔츠, 그리고 투톤 컬러의 모던한 핏 피케 셔츠 등으로 출시된다. www.descentkorea.co.kr

버버리 컬러 코팅 가죽 크로스 바디 브리프케이스 버버리 런던에서 독특한 컬러의 가죽 소재로 제작한 서류 가방을 제안한다. 송아지가죽을 염색 코팅해 진한 컬러와 무광택의 고급스러운 질감이 돋보이며, 일체형 지퍼가 달려 있어 출장이나 미팅에 유용하게 쓰인다. 가죽 손잡이와 탈착이 가능한 어깨끈으로 편리함을 강조했으며, 안감을 가볍게 패딩 처리해 충격 방지에 도

움을 준다. 문의 02-3485-6536

라포르트 트루 워크 제로 II 태슬 목 락포토에서 2014 S/S 시즌을 맞아 '트루 워크 제로 II 태슬 목'을 새롭게 출시했다. 봄을 담은 신선했던 컬러가 돋보이며, 놀림도록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워터리저로 전해져 충격에서 발을 보호하고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아디프린' & '아디프린 플러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다. 신선했던 오렌지와 민트 컬러 2가지로 출시한다. 문의 02-2635-7729

빨리리 광고 내용 정경 3월 19일차(Vol. 106) (스타일 조선크림)에 게재된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빨리리(PAL ZILIERE) 광고 페이지의 문의 번호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신 독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와 미안함을 드립니다. 빨리리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1599-0007



바버리



프리메 국내 1호점 오픈 프리메(Frette)가 압구정동 갤러리아 WEST 5층에 단독 부티크 매장을 오픈했다. 프리메는 전 세계 왕실과 귀족들에게 사랑받는 1백50년 역사의 이탈리아 리빙 토탈 브랜드다. 해외에서는 마돈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과 비타노브라, 빌 게이츠, 마크 제임스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프리메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리의 리즈 쥘텐, 런던의 사보이, 로마의 그랜드, 뉴욕의 플라자, 홍콩의 페닌슐라와 민다린 오리엔탈, 싱가포르의 리틀 호텔 등 세계 각국의 유명 호텔 특별 객실에 프리메의 침구류와 타월, 가운 등을 비치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의 02-546-0955



캐논 2014년 상반기 신제품 출시 캐논이 2014년 상반기 신제품, 파워샷 G1 X Mark II, 파워샷 SX700 HS, 파워샷 N100, 파워샷 D30, 익사스 265 HS, 익사스 145 등 콤팩트 카메라 6종을 공개했다. 신제품 중 가장 주목받은 파워샷 G1 X Mark II는 캐논의 광학 기술력이 집약된 1.5형 대형 이미지 센서와 고성능, 고화질의 광학 5배 줌렌즈 등을 갖춘 것으로, 별도의 렌즈를 교환하지 않아도 1대의 카메라로 다양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2191-8533

스와치



스와치 올리브 H. 아트 스페셜 스와치에서 독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올라프 히체크와 함께 '올리브 H. 아트 스페셜'을 출시한다. 그의 작품인 플라워 헤드와 네이처 맨, 플라워 헤드 등을 형상화한 시계를 스페셜 세트로 판매하며 전 세계 약 88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아티스트가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패키지는 각각 고유의 남바가 있어 소장 가치를 더한다. 문의 02-3446-9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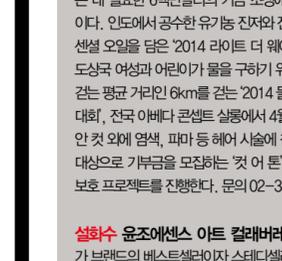


까르띠에 아돌레프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가 4월을 맞아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아돌레프 드 까르띠에' 컬렉션을 선보인다. 조약돌을 담은 매혹적인 원형 펜던트는 자개, 오톱스,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으며, 펜던트 중에는 다이아몬드 또는 오톱스를 세팅했다. 네크리스와

사샤로브스키



까르띠에 아돌레프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가 4월을 맞아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아돌레프 드 까르띠에' 컬렉션을 선보인다. 조약돌을 담은 매혹적인 원형 펜던트는 자개, 오톱스,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으며, 펜던트 중에는 다이아몬드 또는 오톱스를 세팅했다. 네크리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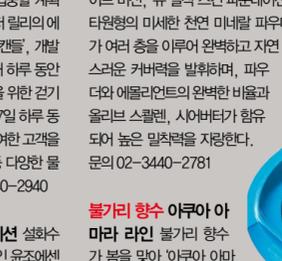


에스티 로더 퍼어 컬러 앤비 사인 립스틱 에스티 로더가 신제품 '퍼어 컬러 앤비 사인 립스틱'을 소개한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립스틱을 뛰어넘는 새로운 컬러와 텍스처로 까다로운 한국 여성은 물론 아시아 여성을 타겟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현대 건축물처럼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더한 케이스 역시 돋보이며, 립스틱 전 쉘에 들어 있는 블루-피그먼트가 피부의 노란빛을 중화해 피부색을 한층 화사하게 해준다. 심세한 누드부터 생기발랄한 코랄, 핑크, 베리 컬러까지 총 16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40-2772

에스티 로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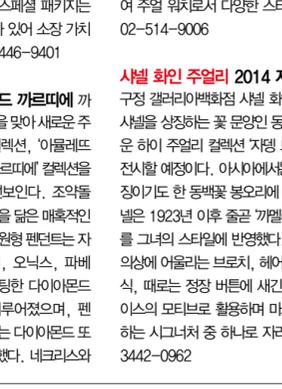


에스티 로더 퍼어 컬러 앤비 사인 립스틱 에스티 로더가 신제품 '퍼어 컬러 앤비 사인 립스틱'을 소개한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립스틱을 뛰어넘는 새로운 컬러와 텍스처로 까다로운 한국 여성은 물론 아시아 여성을 타겟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현대 건축물처럼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더한 케이스 역시 돋보이며, 립스틱 전 쉘에 들어 있는 블루-피그먼트가 피부의 노란빛을 중화해 피부색을 한층 화사하게 해준다. 심세한 누드부터 생기발랄한 코랄, 핑크, 베리 컬러까지 총 16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40-2772



아베다 2014 자구의 달 캠페인 천혜의 라이프스 타일 뷰티 브랜드 아베다가 16번째 자구의 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베다는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6백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도에서 공수한 유가농 진자와 진저 릴리의 에센셜 오일을 담은 '2014 라이트 더 웨이 캔들', 가발 도장용 여성과 어린이가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동안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걷는 '2014 물을 위한 걷기 대회', 전국 아베다 콘센트 샵에서 4월 7일 하루 동안 컷 외에 염색, 피마 등 헤어 샵에 참여해 고객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컷 어 톤' 등 다양한 콜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문의 02-3440-2940

아베다



에스티 로더 퍼어 컬러 앤비 사인 립스틱 에스티 로더가 신제품 '퍼어 컬러 앤비 사인 립스틱'을 소개한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립스틱을 뛰어넘는 새로운 컬러와 텍스처로 까다로운 한국 여성은 물론 아시아 여성을 타겟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현대 건축물처럼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더한 케이스 역시 돋보이며, 립스틱 전 쉘에 들어 있는 블루-피그먼트가 피부의 노란빛을 중화해 피부색을 한층 화사하게 해준다. 심세한 누드부터 생기발랄한 코랄, 핑크, 베리 컬러까지 총 16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40-2772



아베다 2014 자구의 달 캠페인 천혜의 라이프스 타일 뷰티 브랜드 아베다가 16번째 자구의 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베다는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6백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도에서 공수한 유가농 진자와 진저 릴리의 에센셜 오일을 담은 '2014 라이트 더 웨이 캔들', 가발 도장용 여성과 어린이가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동안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걷는 '2014 물을 위한 걷기 대회', 전국 아베다 콘센트 샵에서 4월 7일 하루 동안 컷 외에 염색, 피마 등 헤어 샵에 참여해 고객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컷 어 톤' 등 다양한 콜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문의 02-3440-2940

아베다

JEWEL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된 이 주얼리 컬렉션은 까르띠에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566-7277

사샤로브스키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 스와로브스키에서 주얼 장식을 강조한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를 제안한다. 배젤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16개의 자르코니아 스톤이 원을 그리면서 미끄러지듯 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죽 밴드와 메탈 등 2가지 스타일로 출시되며 화이트, 블랙, 블루 등의 컬러로 선보여 주얼 워치로서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514-9006

사샤로브스키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 스와로브스키에서 주얼 장식을 강조한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를 제안한다. 배젤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16개의 자르코니아 스톤이 원을 그리면서 미끄러지듯 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죽 밴드와 메탈 등 2가지 스타일로 출시되며 화이트, 블랙, 블루 등의 컬러로 선보여 주얼 워치로서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514-9006

사샤로브스키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 스와로브스키에서 주얼 장식을 강조한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를 제안한다. 배젤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16개의 자르코니아 스톤이 원을 그리면서 미끄러지듯 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죽 밴드와 메탈 등 2가지 스타일로 출시되며 화이트, 블랙, 블루 등의 컬러로 선보여 주얼 워치로서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514-9006



아베다

BEAUTY

설화수

시세이도

아베다